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김 홍 연

(K-Risk 발간편집위원회 위원장

/삼부토건 기술연구소 차장)

bigyeon0@gmail.com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에 내놓는 첫 번째 K-Risk(한국리스크전문가협회) 뉴스레터 겨울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모든 회원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

K-Risk(한국리스크전문가협회)는 우리나라 리스크관리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최근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현업에서 활동해 온 리스크 전문가뿐 아니라 리스크에 관심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지식의 양과 질을 융합·향상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세계 최고에 이를 때까지 각 회원의 열정과 재능을 기초로 노력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2회에 걸쳐 개최한 PRM 컨퍼런스와 같은 시기에 각각 발간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일반지침(2020)과 일반 및 워크숍지침을 통합한 제2판(2021)이 짧은 활동기간 내 회원의 단합으로 이룬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본 뉴스레터 겨울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ESG에 기업리스크관리(ERM)” 접목을 시도한 COSO의 문헌, “보건-안전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성숙도 모델 RM3”,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Safran Risk)”이 수록되었고, 지난 가을호부터 새롭게 연재하였던 미국 최고의 VE컨설팅 회사인 VMS사에서 VE실무에 활용하고 있는 “기능중심의 리스크관리(FDRM; Function-Driven Risk Management)”, GFDRR/The World Bank에서 발간한 “도로 지오 해저드 리스크관리 핸드북”이 이어진다.

년 초에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하여 ATP Trainer인 PCCA 박성철 대표의 PM 교육, 이레테크의 MCS 등 각종 교육, 그리고 본 회 회장인 임종권 박사의 K-MOOC 온라인 “리스크 관리의 이해 및 응용” 무료 강좌가 소개되어 있으니 교육 정보를 살펴 활용하시기 바란다.

본 뉴스레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호 등 연간 4회 발간되며, 겨울호가 새해 첫 번째로 문을 열게 된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우리 협회도 새로운 한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으며, 그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보다 나은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다음 호에 상세히 소개드리기로 한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대하며, 어떠한 분야든 리스크에 관심있는 많은 독자 여러분의 K-Risk 방문과 활동을 기다린다.